조선 3사, 연간 수주목표 바짝… 非상선 사업 확장 '청신호'

3년치 일감 확보… 수익성 개선 박차
AI·로봇 기반 현장 생산혁신 분주
에너지인프라 등 신성장동력 확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국내 조선 3사가 연말을 앞두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에 바짝 다가섰다. 3년 치 건조 물량을 확보한 이들 기업은 중국의 추격 속에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비상선 신사업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생산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195척, 216억9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233억1000만달러)의 93.1%를 달성했다. 남은 16억2000만달러도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해 예년처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연간 목표(139억달러)의 91%인 127억달러를 수주했다. 상선 부문은 목표(57억달러)의 146%인 83억달러, 해양 부문은 목표(82억달러)의 54%인 44억달러를 달성했다. 현재 협의 중인 미국 델핀(Delfin) 2호기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계약 성사 여부가 목표 달성의 변수다.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는 한화오션은 선박 43척과 육상 플랜트 1건 등 총 44건, 81억1000만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11월 말 실적(37척, 69억7000만달러)을 넘어섰다.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윤현규 교수는 "조선사들은 건조 슬롯과 생산능력을 고려해 목표를 정하므로 달성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감을 확보한 셈"이라며 "이미 3년 치 물량을 확보했고 2007~2008년 호황 후 무리한 설비 증설로 불황을 겪은 학습 효과로 생산능력 확대와 추가 수주에 신중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조선업계가 수익성 중심의 내실을 다지는 사이 중국은 주력 선종인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까지 추격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세계 대형 LNG운반선 76척 중 한국은 44척(57.9%), 중국은 32척(42.1%)을 수주했다.

이에 조선 3사는 북미 함정·해양플랜트·에너지 인프라 등 비(非)상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로 열린 북미 함정 시장에서 한화디펜스USA는 지난달 29일 미국 TOTE Services와 중형상륙함(LSM) 1척(2억6900만달러) 건조 계약을 맺어 한화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함정을 수주했다. HD현대도 지난달 미국 EPC 기업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오는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현지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신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11기 중 7기(64%)를 수주해 해양플랜트 경쟁력을 입증했다.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FLNG 3기를 동시 건조하며 설계·공정 표준화와 반복 건조로 생산 효율과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인프라도 3사의 공통 신성장동력이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확보했고, 한화오션은 지난 9월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 모델을 공개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일본 모리무라와 선박·데이터센터용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사업 확장과 함께 조선소 내부에서도 공간·인력 제약을 극복하고 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로봇 자동화를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신상범 상무는 "자동화율은 신설 조선소가 많은 중국이 앞서지만 숙련공의 노하우와 생산 데이터를 피지컬 AI에 접목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대형마트, '기업회생' 파장… 3분기 실적 희비

홈플러스, 영업공백… 경영상황 악화
이마트·롯데마트, 실적 상승세 뚜렷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마트 3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의 영업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며 지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반면 홈플러스는 임금 체불과 상품 공급 차질에 이어 전 점포 재휴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위기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3분기 별도 기준 총매출은 5조10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분기 총매출이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은 1660억원으로 46.3% 늘었다. 특히 주력 사업인 할인점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할인점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6% 증가했다. 기존점 매출은 10.6% 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역시 총매출 1조1668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으로 각각 16.6%, 40.5% 증가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롯데마트도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롯데쇼핑 마트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1조46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6억원으로 87.5% 급증했다.

국내 사업의 실적 개선 폭은 더욱 컸다. 국내 롯데마트 매출은 1조1502억원으로 16.2%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79억원으로 725.5% 증가했다. 차세대 물류 거점인 '제타 스마트센터'의 초기 운영 비용에도 기존점 매출이 18%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홈플러스의 경영난에 따른 경쟁 완화를 꼽는다. 성숙 산업으로 분류되는 대형마트 시장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한 데는 경쟁사의 영업 공백으로 인한 고객 유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와 상권이 겹치는 이마트 점포에서는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홈플러스 점포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이마트 영등포점과 둔산점의 매출은 각각 22%, 19% 증가했다. 롯데마트 역시 일부 점포에서 경쟁 완화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추진해 온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마트는 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의 통합 매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가격 경쟁력 강화에 재투자했다. 대형할인행사인 '고래잇 페스타'의 3분기 매출은 29.2% 증가했으며, 초저가 자체브랜드 '5K프라이스' 매출도 두 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는 식료품 중심의 점포 재편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확대에 주력했다. 식품 전문 매장 '그랑그로서리'와 식료품·전문관을 결합한 '제타플렉스'를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간편식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 유입을 확대했다.

다만 양사의 실적 개선을 홈플러스 반사이익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명절 시점 차이와 지난해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은 10월 6일로 4분기에 포함됐지만 올해는 9월 25일로 3분기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선물세트 등 명절 특수가 올해 3분기 실적에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대형마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도 올해 실적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홈플러스의 경영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상품 공급 차질과 자금난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 점포의 영업을 중단했다. 8월 13일 일부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지만 고객 이탈과 상품 구색 축소가 맞물리면서 매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영업활동으로 확보한 자금을 상품 매입과 채무 변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매출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달 초에는 하루 매출이 3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부족은 상품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있지만, 운영자금이 고갈되면서 추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상품 매입 물량은 재개장 초기보다 약 3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체불도 장기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9월과 10월 급여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추석 상여금 지급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오는 17일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조합원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매일 청와대를 찾아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전 점포 재휴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최근 진행 중인 할인 행사가 지난 7월 임시휴업 직전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전과 유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코픽스, 두 달 연속 상승… 신규취급액 3.6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3.62%를 나타냈다. /뉴시스

10월 자동차 수출 65.5억弗… 역대 최대

산업부 "조업일수 증가 등 기인"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역대 10월 기준으로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내수와 생산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이른바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5억5000만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해 18.1% 늘었다. 내수판매는 13만7000대, 생산량은 38만1000대로 각각 7.9%, 25.8%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30억9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49.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부품은 17억3500만 달러로 15.0% 늘어났다.

차종별 친환경차 10월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7만3445대(+72.2%), 전기차 3만1290대(+62.6%)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1670대·-32.8%)와 수소차(2대·-85.7%) 등은 줄었다. 전체 수출량은 전년대비 65.2% 증가한 10만6407대를 기록했다.

10월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량은 8만5334대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3만4858대로 전년대비 판매가 81.4% 증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만434대로 66.2% 늘었다. 하이브리드는 4만8865대로 전년대비 판매가 14.0% 증가했다. 수소차는 1만4424대로 10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 33억7600만 달러(+33.2%) ▲미국 28억5700만 달러(+34.5%) ▲유럽연합(EU) 11억8100만 달러(+58.2%)였다. 또 ▲기타 유럽 3억4300만 달러(-28.5%) ▲아시아 3억7100만 달러(-53.7%) ▲중동 4억9700만 달러(+23.8%) ▲중남미 3억6800만 달러(+27.2%) ▲오세아니아 3억4100만 달러(+37.4%) ▲아프리카 6100만 달러(+71.3%)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평균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SUV 차종에 대한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 등에 기인해, 역대 10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